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강력 대응!! 지난해 환경부, 국회 등에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 노력의 성과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에 집중한 법 개정	환경정책과	
② 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지원 소상공인육성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 매출액 감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원 융자지원, 1년간 대출이자 2% 지원 중소기업 특별자금 당초 1,200억원 → 2,000억원 확대, 1년간 대출이자 2% 지원	중소벤처 기업과	
③ 경북도, 1,619억원 투입... 친환경·스마트 축산업 구축 도민과 상생하는 친환경축산과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구축에 집중	축산정책과	사진 별첨
④ 경북도 사회적경제 설 특판전, 성황리에 진행 중 13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경제 우수제품 명절특판전 열어 경북지방우정청, 신용보증기금,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공공기관 참여	사회적경제과	사진 별첨
⑤ 경북도, 비축 수산물 탄력적 운영으로 설 물가 부담 줄인다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10-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물과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 관람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14(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종 현		
			팀 장	강병정	주무관	라경연
		연 락 처	054-880-3538			

경북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지난해 환경부, 국회 등에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 노력의 성과 -
-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에 집중한 법 개정 -

경상북도는 오는 5월 27일에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에 방문하여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과이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내용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활용업체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주원인인 보관량 초과 등의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하여 폐기물이 대량 적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대집행 절차가 개선되어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 실시 근거를 추가, 대집행 비용 보전을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 현황의 체계화를 위해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업종별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자격·능력을 점검받아야 한다.

도는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 폐기물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하고 발생한 불법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도·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14(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기업과			
		작성 자	과 장	이 강 학		
			팀 장	김명제	주무관	신재선
		연 락 처	054-880-2681			

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지원

- 소상공인육성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 -
- 매출액 감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원 융자지원, 1년간 대출이자 2% 지원 -
- 중소기업 특별자금 당초 1,200억원 → 2,000억원 확대, 1년간 대출이자 2% 지원 -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당초 계획 1,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액)으로 확대하고 시·군 및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처리기간을 전년도 기준 6일 정도 단축, 하루라도 빨리 기업에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소상공인육성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은행간 약정을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금리로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 5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한다. 지원 결정된 기업에는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며 보증료도 우대 적용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

(년·분기·반기 대비)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포항 소재기업 3%)를 1년간 지원한다.

총 7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취급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총 2,000억원 규모(당초 계획 1,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액)의 은행협력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 소방시설업, ⑥ 운수업, ⑦ 무역업, ⑧ 관광숙박시설업, ⑨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 자동차정비·폐차업, ⑪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道 중점육성기업) ① 사회적기업, ②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 실라리안 기업, ⑤ Pride 기업, ⑥ 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자금이 중소기업

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안정화와 일자리 지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향후에도 금융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경북도의 정책자금을 1조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 특별자금

-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 054-470-8570

※ 소상공인 정책자금

-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 각 지점 문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438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16			

지 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해당 지역
구미지점	구미시 백산로 136(송정동 66) (NH농협은행 구미중앙지점 2층)	054-476-3214	구미, 군위, 칠곡
포항지점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 3층)	054-283-2730	포항, 영덕, 울진
울릉·독도 출장소	울릉군 울릉읍 도동1길 9 (농협은행 울릉군지부 1층)	(054)791-8994	울릉
경산지점	경산시 원효로 15(중방동 869-5)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3층)	053-811-0790	경산, 청도
안동지점	안동시 남문로 20(남문동 145-3)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054-854-3300	안동, 영양, 청송, 의성
경주지점	경주시 중앙로 32(노동동99-1)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054-777-0140	경주
영주지점	영주시 번영로 149(하망동 344-34)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054-631-8300	영주, 봉화
김천지점	김천시 김천로 154(남산동 50-2)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	054-433-1300	김천, 성주, 고령
영천지점	영천시 시장로 45(완산동 1072-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054-336-6800	영천
문경지점	문경시 중앙로 141(점촌동 261-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054-556-7400	문경, 예천
상주지점	상주시 상산로 260(남성동85-1) (농협은행 상주시지부 3층)	054-531-3500	상주

2020년 설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지원

- ◆ 설(1.25.) 대비,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 ◆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 2,000억원

-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출이자 2% 지원
 - 3억원 이내 (우대 5억원) / 1년간 2% 이차보전 / 11개 업종
- * 명절자금 처리기간을 기존 12일 → 6일 로 단축 추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융자규모	1,200억원	1,800억원	2,000억원	설 자금 1,200억원 + 수시분 800억원
처리기간	14일~23일 소요	12일 소요	6일 소요	처리기간 6일 단축

* 시군 접수후 진흥원에 서류 송부(2~3일 이내) → 진흥원에서 융자추천 결정(2~3일 이내)

□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 700억원


- 매출액 10%이상 감소(년, 반기, 분기 비교)한 중소기업 대출이자 2% 지원
 - 5억원 이내 / 1년간 2% (포항시 3%) 이차보전 / 전업종

자 금 명	융자규모	융자한도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700억원 (포항시 200억 포함)	5억원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1년간 2% (포항시 3%)

* 매출액 감소율 10~30%(3억원 이내), 30~40%(4억원 이내), 40% 이상(5억원 이내)

□ 「소상공인 육성자금」 - 500억원

-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2% 지원
 - 3천만원 이내 융자(우대 5천만원) / 2년간 2% 이차보전 / 도내 소상공인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0. 1. 14(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축산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이 회 주		
			팀 장	이준규	주무관	김영태
		연 락 처	054-880-3412			

경북도, 1,619억원 투입... 친환경·스마트 축산업 구축

- 도민과 상생하는 친환경축산과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구축에 집중 -

경상북도는 2020년 총 1,619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과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축산모델을 확산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가축개량과 축산시설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소비자의 패턴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업으로의 전환과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가축개량과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한우개량 33억원 ▲불량모돈 갱신 23억원 ▲우수 기자재 및 폭염 피해 방지 168억원 ▲가축재해보험 60억원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 및 낙농기자재 94억원 등을 지원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자급화와 친환경축산 인프라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 163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확대에도 158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190호를 지정받았으며 금년도에는 300호까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소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기존 개별농장 단위 지원에서 시군 또는 마을단위의 광역 악취 개선에 64억원을 지원하는 등 악취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축사시설 개선과 미래형 축산업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55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48억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130억원 ▲IOT 축우 관리 8억원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축산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도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특구 조성 13억원 ▲학생승마체험 34억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2억원 ▲소싸움 경기장 운영 3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사업으로는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8억원 ▲가축분뇨 퇴비 살포 및 퇴비부숙도판정 등 24억원 ▲승용마 조련 1억원 등을 투자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020년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축산형태를 벗어나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축산업,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축산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14(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과 장	김 규 율			
	연 락 처	작 성 자	팀 장	차순애	주무관	김인걸
		054-880-2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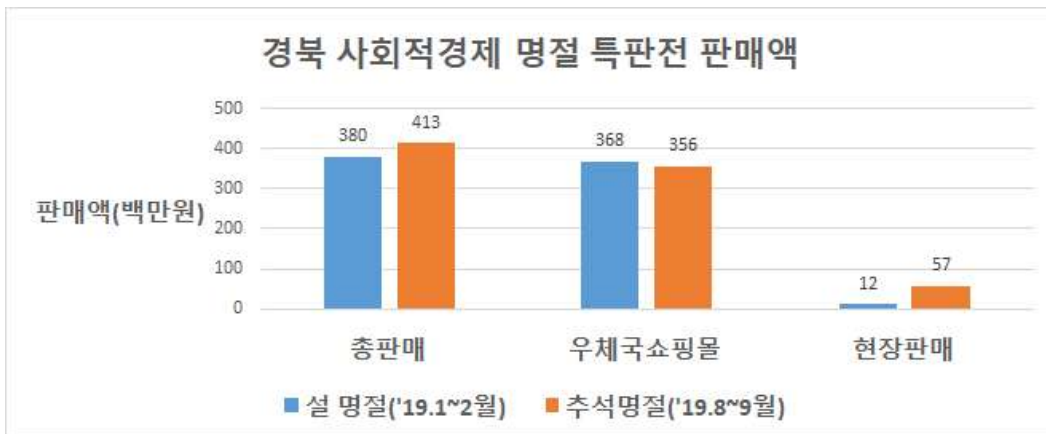
경북도 사회적경제 설 특판전, 성황리에 진행 중

- 13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경제 우수제품 명절특판전 열어 -
- 경북지방우정청, 신용보증기금,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공공기관 참여 -

경상북도는 경북지방우정청, 신용보증기금,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코레일 경북본부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13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경제 설 명절 우수상품 특판전’을 운영한다.

경북 사회적경제 설 명절 특판전은 13일 신용보증기금, 코레일 경북본부를 시작으로,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16일 동대구우체국, 22일 경북도청 등 9개 공공기관의 본사 및 지역본부, 우체국 등 총 13개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판전에는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대구·경북의 구매력이 높은 공공기관이 대거 동참함에 따라 높은 판매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판전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공공기관을 통한 특판전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명절을

맞아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며 행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비쳤다.

또한, 이번 특판전에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패키지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경제 상사맨’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안테나숍’을 공공기관에 조성함으로써 공공기관 판로개척에 큰 성과를 내었기에 명절 뿐만 아니라 기념일 등 다양한 특판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판로개척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대규모 공공기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 특판전 추진 일정

공공기관	일시 및 장소
경북지방우정청	o 1.16(목)~1.17(금) 09:00~17:00, 동대구 우체국
	o 1.20(월) 09:00~17:00, 경주 우체국
	o 1.20(월)~1.21(화) 09:00~17:00, 포항 우체국
신용보증기금	o 1.13(월) 11:00~13:30, 신용보증기금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o 1.16(목) 11:00~15: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o 1.17(금) 11:00~15: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o 1.15(수)~1.17(금) 11:00~16:00,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o 1.20(월) 11:00~13:30,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o 1.21(화)~1.22(수) 11:00~14:00,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전력기술	o 1.20(월)~1.21(화) 11:00~14:00, 한국전력기술(드림창조협동조합)
고용복지센터	o 1.21(화) 10:00~15:00,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o 1.22(수) 10:00~17:00, 경북도청
코레일 경북본부	o 1.13(월)~1.15(수) 11:00~16:00, 코레일 경북본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14(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물과			
		작성 자	과 장	김 진 규		
			팀 장	권기수	주무관	최은석
		연 락 처	054-880-7721			

경북도, 비축 수산물 탄력적 운영으로 설 물가 부담 줄인다

-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10~30% 할인 판매 -

경상북도는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4,967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하고 권장가격으로 판매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축 수산물은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1일간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방출량은 명태 3,654톤, 오징어 351톤, 갈치 137톤, 고등어 339톤, 참조기 421톤, 마른 멸치 65톤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도내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하여 온가족이 둘러앉아 즐길 수 있는 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수산물은 가족 사랑이라는 인식을 통해 새로운 한 해에는 가족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주요 수산물 가격 동향

(단위 : 원)

품 목	규 격	판 매 단 가		비 고
		2019년	2020년	
조 기	20kg	1,000,000	1,000,000	100마리
명 태	20kg	45,000	65,000	20마리
오 징 어	8kg	80,000	100,000	20마리
문 어	1kg	50,000	70,000	kg당
고 등 어	10kg	40,000	50,000	22마리

<포항수협>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 관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15일(수) 저녁 7시30분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0년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를 관람한다.